



졸전 또 졸전... 허~답답하네

허정무호 남아공 두번째 평가전 0-0 비겨
고질적 골 결정력 부족에 현지적응도 안 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전지훈련 중인 축구 대표팀이 새해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또 한번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 공화국 루스텐버그의 로열바포켈 스타디움에서 열린 현지 프로 팀 플래티넘 스타스와 친선경기에서 전·후반 90분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비겼다.

지난 10일 잠비아와 새해 첫 A매치에서 2-4로 완쾌했던 대표팀은 승진보를 전하지 못했고 자신감을 충전할 기회를 놓쳤다.

허정무 감독은 전날 예고한 대로 잠비아전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실험하려고 베스트 11에 변화를 줬다.

염기훈과 이승철이 3-5-2 전형의 투입으로 선발 출격했고 스티브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김근환-조용환-김형일이 늘어났다.

허정무 감독이 스티브의 3-5-2 전술을 시험한 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4-4-2 포메이션을 앞세워 한국의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앞장섰던 허정무 감독은 풀백 자원이 부족한 데다 아프리카 팀에 대한 대응력을 시험하려고 오랜만에 스티브 수비라인을 가동했다.

경기 시작 3분 김보경의 왼발 중거리슈팅으로 공격의 포문을 연 한국은 17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신형만이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지만 오범석의 헤딩은 골대를 벗어났다.

한국은 후반에도 높은 볼 점유율을 보이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으나 골 결정력 빈곤과 마무리 부족이 문제였다.

"상대 뒷공간을 잘 이용했지만 마무리와 연결이 부족했다. 또 좋은 찬스를 가지면서도 다음에 볼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의 로열바포켈 스타디움에서 열린 현지 프로팀 플래티넘 스타스와 친선경기에서 졸전 끝에 득점 없이 비기고 나서 해설사 부재와 골 결정력 부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허정무 감독과 일문일답.
-오늘 많은 선수를 투입했는데.

▲조금 나이지리아는 했지만 아직 공의 빠르기에 적응이 안 된 모습이다. 포트엘리자베스는 고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까지는 전체 선수를 기용할 계획이다.

-3-5-2 시스템 실험에서 소극이 있었다.

▲전반에 스티브를 해서 상대 공격을 역으로 봤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상대 뒷공간을 잘 이용했고 그다음에 마무리나 연결이 안 됐던 점이 있다. 후반에는 (4-4-2 전형으로) 바꿨지만 좋은 찬스를 가지면서도 다음에 볼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젊은 선수들을 계속 실험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조합해서 서로 잘 맞고 조화가 잘 되는 선수를 찾아보겠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13일 루스텐버그 로열 바포켈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공 프로팀 플래티넘 스타스와와의 경기의 0대0 무승부로 끝낸 후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아직도 마무리·연결 부족”

허정무 감독 “阿迪 상태 스티브 효과 있어”

"상대 뒷공간을 잘 이용했지만 마무리와 연결이 부족했다. 또 좋은 찬스를 가지면서도 다음에 볼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3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의 로열바포켈 스타디움에서 열린 현지 프로팀 플래티넘 스타스와 친선경기에서 졸전 끝에 득점 없이 비기고 나서 해설사 부재와 골 결정력 부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허정무 감독과 일문일답.

-오늘 많은 선수를 투입했는데.

▲조금 나이지리아는 했지만 아직 공의 빠르기에 적응이 안 된 모습이다. 포트엘리자베스는 고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기까지는 전체 선수를 기용할 계획이다.

-3-5-2 시스템 실험에서 소극이 있었다.

▲전반에 스티브를 해서 상대 공격을 역으로 봤는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상대 뒷공간을 잘 이용했고 그다음에 마무리나 연결이 안 됐던 점이 있다. 후반에는 (4-4-2 전형으로) 바꿨지만 좋은 찬스를 가지면서도 다음에 볼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젊은 선수들을 계속 실험하는데.

▲이런 선수들을 조합해서 서로 잘 맞고 조화가 잘 되는 선수를 찾아보겠다.



태릉선수촌 훈련 개시식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 개시식을 겸한 신년 하례가 13일 태릉선수촌에서 열렸다. 유도의 황희태와 쇼트트랙의 조해리가 선수대표로 훈련 시작 선언을 하고 있다.

“난 전천후 미드필더, 제라드처럼 되고 싶어”

기성용 셀틱 전용채널 인터뷰... 구단측 한국어 합피 오픈도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FC의 '기성용 스타들'이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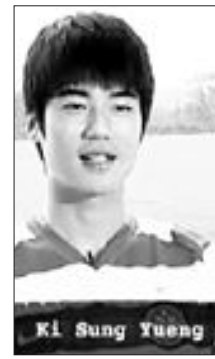
기성용이 구단 전용 인터넷 '채널 67(channel67.net)'의 프로그램 '더 허들스 온라인(The Huddle Online)'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더 허들스 온라인은 매주 화요일 업데이트 되는 프로그램으로 기성용은 10분 가량 입담 소감과 목표, 자신의 성장배경 등에 대해 언급했다.

구단은 한국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홍보 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기성용 세일즈'에 나섰다. 셀틱은 기성용의 입단에 맞춰 지난달 구단 홈페이지에 한국어판을 오픈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기성용은 4년의 호주 유학 생활을 통해 익힌 유창한 영어로 사회자와 대화를 나눴다.

"내 이름은 기성용이지만 발음이 어려



Ki Sung-yong

우니 '기'라고 불려달라"고 밝힌 기성용은 "공격, 수비는 물론 세트피스도 잘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스티브 제라드가 나의 영웅이다. 숏이나 패스 등 제라드처럼 모든 면에서 완벽한 미드필더가 되고 싶다. 공격이나 수비 등 상관하지 않고 팀에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학생활에 대해서는 "유럽으로 가고 싶었지만 비자문제 때문에 잉글랜드와 스페인에 비추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호주로 선택했다"며 "14살때 호주에 갔을 때는 A,B,C도 몰랐다. 힘든 점을 극복하고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리그 틀이 만만치 않다는 언급도 했다. "한국 선수들이 체격적인 면에서는 강하지 않지만 매우 빠르고 유연하다"고 말한 기성용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소개도 했다. 기성용은 "어머니는 육상선수 출신이고, 아버지는 고등학교(금호고) 축구팀 감독을 하셨다. 온 가족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부모님 덕분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베스트 11, 스코틀랜드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각오도 다졌다.

기성용은 "한국팬들이 셀틱에 진출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가 무라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즐기면서 목표를 이루나갔겠다"고 다짐했다.

기성용은 "한국팬들이 셀틱에 진출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가 무라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즐기면서 목표를 이루나갔겠다"고 다짐했다.

월드컵 같은 조' 나이지리아

네이션스컵 이집트에 1-3 패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대회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같은 B조에 속한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첫 경기에서 이집트에 졌다.

나이지리아는 13일(이하 한국시간) 앙골라 벵겔라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이집트에 1-3으로 패했다. 전반 12분 케페우 오바시의 선제골로 기선을 잡은 나이지리아는 그러나 전반 34분 에마드 모에타브에게 동점골을 내줘 1-1로 전반을 마쳤다.

이집트는 후반 9분에 아메드 하산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고 42분에는 모하메드 나구이가 페기골까지 넣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프로축구에 '심판 승강제' 도입

한국프로축구연맹(회장 박정환)이 K-리그 경기의 질과 관중의 공정성을 끌어올리려고 '심판 승강제'를 도입한다.

프로연맹은 13일 "올해부터 심판을 1부와 2부로 구분하기로 했다. 1부 심판은 K-리그 경기를 담당하고 2부 심판은 2군 리그와 프로팀 산하 학원팀 경기인 챌린지리그에 투입된다"며 "이미 K-리그 심판들의 1, 2군 부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판 승강제는 능력이 뛰어난 심판을 1군에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심판을 2군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심판 개인의 고과 점수에 따라 시즌 중 1부로 올리거나 2부로 강등하는 제도다.



14일(목)

▲09/10 대학장사씨를 문경하마당 Day1 (13:00-MBC ESPN)

▲09/10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금호

생명(16:50-SBS스포츠)

▲09/10 V리그<GS칼텍스> 흥국생명 (16:40-KBS n스포츠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18:4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KT&G> 전자랜드(18:50-SBS스포츠) <LG> KT(18:50-MBC ESPN)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HALLA Welthtech Corp.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 전문인력 유형, 자격자, 학·석사 학력자, 실무경력자. www.grad.kr

해령법률경매. 부동산경매, 임차권, 소유권.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정 위치: 법원정문앞